

SK, 중국 방풍림 조성에 3억원 희사

SK는 황사 방지와 한-중 우호협력 증진 등을 위해 중국 内蒙古 사막지역에 SK우호림(友好林)을 조성키로 했다.

SK는 5월3일 서린동 사옥에서 신헌철 사장과 권병현 전 주중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<한-중 우호 녹색관리장성> 사업 지원금 3억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갖고 방풍림 조성을 약속했다.

지원금은 한중미래숲(대표 권병현)에 전달될 예정이다.

SK는 SK 지원금에 산림청이 4억원을 보태고 중국에서도 매칭펀드(Matching Fund)를 조성해 2007년 2.7km² 면적에 모두 20만 그루의 식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7/05/03>